

#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었습니다

제2의 해방의 날인 7.27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과 축포야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준공, 전쟁로병들과의 군민련환대회...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야말로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일심단결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었습니다.

로병대표로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저는 위대한 선군정장들을 대대로 모셔 우리의 7.27을 영원하다는 진리를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 \* \*

인류의 전쟁사에는 수많은 전승의 날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7.27과 같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무력침범자들과 남조선피괴군을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 침략자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같은 승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기에 세계는 《7.27은 조선이 신화를 창조한 력사의 날》, 《7.27은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일떠세운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켜낸 영웅적승리의 날》이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습니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승리의 기적인 7.27을 안아오시고 총대로 승리의 7.27을 이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철칙의 의지입니다.

지난해 전승 59돐 경축행사에 이어 전승 60돐에 펼쳐진 경축행사도 바로 우리 원수님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속에 마련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즐기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전승 60돐을 승리자의 축전으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길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첫 신년사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군사사상, 불변 불휴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라고 하시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부지까지 잡아주시고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저는 낮에도 밤에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찾고찾으시며 기념관을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혁명적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나라의 보물고,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려 세상에 내놓으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TV로 접하면서 그분의 고결한 충정에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습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창골혁명사적지와 유령혁명사적지, 선군의 산악인 오성산을 비롯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령도사, 선군령도사가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련일 찾으시고 대원수님들의 위인적품모와 평도업적을 력사적사실 그대로 보존하고 빛내어나가도록 세심히 일깨워 주신 원수님이였습니다.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진행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창작실태도 친히 로해하시고 형상방향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우리 원수님이였습니다.

그렇듯 다심한 손길아래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평도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형성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펼쳐졌고 홀과 전시관들, 대형반경화화 전시물 등 모든 공간들이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개관되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개관식에 참가한 우리 로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정중히 모신 《승리》상에 경의를 드리고 기념관을 참관하였습니다.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군인들을 환영하는 사진앞에 이르니 한밤중에 총공격을 들이대면 서울시민들의 생명재산이 피해를 입힐수 있다며 공격시간을 다음날 새벽으로 정해주시 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가 안겨오고 적비행기를 좌멸군 기관총앞에 서니 비행기 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운동 등 령활무쌍한 전법과 야간기습전, 적국적인 진지방어전 등 탁월한 지략으로 우리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던 수령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습니다.

파편에 구멍이 난 람홍색공화국기발

앞에서 우리 로병들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기발을 바라보느라니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주체 37(1948)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당시 남조선의 《애국청년회》에서 사업하고있던 저는 조직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립 선포식과 함께 국기도안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이 불을 뜯어 휘젓을 80x100cm크기로 잘라 색을 먹어 밤새 공화국기발을 만든 저는 11일 새벽 5시 앞에는 미국대사관이 있고 옆에는 레베당, 그 뒤로는 대법원, 중앙검찰청이 자리잡고있는 리화녀자중학교 국기제양대에 공화국기를 띄웠습니다. 서울상공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본 서울시민들은 저마다 환성을 올리였습니다.

공화국기는 우리 조국의 상징이었고 삶과 행복의 기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람홍색공화국기를 대오앞에 휘날리며 미제를 타승하였고 1960년대의 인민군군병들은 우리 령해에 침범한 미제무장간첩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습니다. 야외에 전시된 《푸에블로》호를 보느라니 우리 인민군대가 나포한 미제무장간첩선을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미국놈에게서 빼앗은 무장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말씀과 함께 한평생 이어가신 장군님의 선군장정이 밝혀와 우리 로병들은 쫓겨치는 격정을 억제할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우리의 승리의 7.27이 어떻게 마련되고 빛나게 되었는가를 새겨주는 력사의 증견장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령도가 펼쳐놓은 대화폭입니다.

승리의 력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실때만이 계승되고 끝없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미국은 제2의 6.25전쟁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왔습니다. 최근년간에만 해도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람도미사일발사로 매도하면서 유엔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제재결의》를 채택하고 지난 3월부터 공화국을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평안적으로 벌려왔습니다.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그 시각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정의의 보검인 선군의 기치를 드시고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포병들을 찾으시여서는 명중로사격의 방법과 묘리도 일깨워주시고 비행사들을 찾으시여서는 조국의 하늘을 동무들에게 맡긴다는 크

박 차 애

고 최대열점지역인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에까지 서슴없이 나가시여 밤미대결전의 최후승리로 군인들을 불러 일으키시였습니다.

말마전 인민군군인들과의 상봉모임에서 전해주던 구분대지휘관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군의 산악인 오성산을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오성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사시였다고,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자신께서 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한명하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이러 전진까지 불과 350m밖에 안되는 까칠봉초소를 찾으시여 병사들을 한복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원수님께서서는 적과의 거리가 불과 100m밖에 안되는 마지막 분초로 야전차를 몰도록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이 야전차를 막아서자 원수님께서서는 오성산병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하시며 마지막 분초까지 찾으시고 이곳을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라고,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다고 뜨겁게 이리 시였습니다.

그 모습은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 싸우는 병사들이 보고싶다고 하시며 불비속을 뚫고 고지를 찾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였습니다.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가보아야 한다시며 판문점에까지 나가시던 아버지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기에 남조선의 언론들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대수령의 선군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고계신다. 그분께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것인지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결심이 단호하고 결심하면 주저할 줄 모르며 한번 타격하면 불바다로 만드는 탁월한 명장의 기질을 갖추고계신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탁월한 령군술에 의해 적들의 복침전쟁소동은 물거품이 되었고 선군조선에서는 세계가 보란듯이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대성황리에 경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전쟁로병들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주시려고 늘 마음써오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전쟁로병들을 조국을 피로써 지켜싼 혁명선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승 59돐을 맞으며 전국의 로병대표들을 평양에 불러 영광

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는데 이어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또다시 우리 로병들을 불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병들을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고 늘 마음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전국의 4만 7 075명에 달하는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한달한시에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를 비롯한 음악축포로 온 나라가 우리 로병들을 축하해주도록 해주었습니다.

비단 그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건립을 친히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편성해주시였으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하도록 구체적인 방향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준공예포를 펼치시였습니다.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형성된 인민군렬사추모탑, 문주와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녀》, 영웅전사들을 추모하는 헌시비와 군상들, 500여명이 안치된 려사들의 묘를 돌아보면서 우리 로병들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의리에 두불을 적시였습니다.

옛 전우들의 묘비앞에 꽃다발을 놓아주면서 우리 로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동무들은 영생하고있습니다. 동무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 조선로동당입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면서 저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있어 우리 로병들의 생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영생의 진리를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진정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회세의 선군령장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는 한 조선의 7.27은 영원하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고 빛내여오신 승리의 7.27을 최후승리의 7.27로 이어놓으시려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은 세계는 이것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펼쳐진 경축행사를 보면서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대대로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

고야말 천만군민의 맹세를 그대로 보여주시였습니다.

무인타격기, 전략로켓을 비롯하여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초정밀 타격수단들을 보니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신심으로 가슴이 높뛰였습니다.

광장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시위대오는 그대로 일편단심 당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였습니다.

열병행진 및 군중시위를 직접 본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이런 열병식은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이 없이는 진행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의 군력은 그 어떤 강적도 당할수 없다.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조선은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 《보부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를 보니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한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백두산혁명강군과 군민대단결이 있기에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다.》라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63년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용감히 나아가셨다! 라고 호소하시며 전승에 로 온 겨레를 이끌어주시었다면 오늘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고 호소하시며 강성국가건설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 주려고계십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7.27행진곡》을 영원한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추켜 들고 언제나 힘차게 부르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갈것입니다.

전승광장 지나 노도치는 행진 멈추지 말자 조국통일광장 열병식을 향해 곧바로 가자

당중앙을 따라 발걸음을 맞춰 보무 당당히 동무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승리 승리 승리의 7.27 더 높이 펼쳐자 위대한 조선의 승리를

천하제일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의 7.27만이 약속되어있습니다.

저는 몸은 비록 늙었지만 포연속을 뚫고나간던 1950년대 그 정신으로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 위인을 모신 민족의 긍지

은 행성의 초점이 조선으로 모아졌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의 내측전으로 맞이하게 된 격정적 환희가 경주행사장마다에서 터져 울렸으며 평양의 맑은 하늘에는 초록의 꽃보라가 날리고 싱싱한 대지에는 화려한 꽃바다가 펼쳐졌다.

러운 행로를 장엄한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군중시위의 장엄한 물결을 보며 사람들은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할 전시키시고 일심단결을 굳건히 해주며 천하제일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었다.

드린다》에서 사람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가슴 뜨거이 받아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영도력과 숭고한 도덕의리는 전승전을 앞두고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도 깃들여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전승의 광장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고 김일성상관관객대집단지오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는 5월1일경정장은 노래와 춤물결로 흥성있었으며 7월의 하늘가로는 전승의 찬가들이 메아리쳤다.

위인이 계서 오늘날의 성대한 전승 60돐 경축행사도 있고 민족의 맑은 래일이 있는 것이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평양의 아름다운 보통강가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일떠서고 뜻깊은 개관식이 열리게 된 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세심한 지도의 손길을 떠나 말할 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대한 사랑은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전승로병대도원들을 경축행사장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온 혁명선배로, 위대한 너네의 승리자들로 내세워주시고 행사기간 로병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새라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었다.

전승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 있어 이 땅우에는 오늘도 승리의 력사가 아로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의 확고부동한 계승속에 최후승리가 있는 법이다.

평양에 초청되었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외신기자들, 해외동포들뿐아니라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는 이번 전승절경축행사를 통하여 한없이 인자하고 겸허하면서도 담대한 기상이 넘쳐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뵈오면서 그이의 위인적품모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새로 웅장하게 일떠세울 구상을 하시고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과 기념관개관과 관련한 강령적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이께서는 뜻깊은 개관식날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개관테이프도 끊어주시며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대한 사랑은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전승로병대도원들을 경축행사장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온 혁명선배로, 위대한 너네의 승리자들로 내세워주시고 행사기간 로병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새라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었다.

그러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배심 든든하고 기세는 충천하다. 그이께서 계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은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이며 백두산대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할것이다. 위대한 전승의 7.27은 최후승리의 7.27로 이어질것이다.

최세의 선군령장의 촉복속에 전승의 촉도가 터져울랐던 력사의 김일성광장으로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간 열병종대들과 최첨단무기와 전투기체계로 튼튼히 장비된 기계화종대들, 공화국의 영광스

기관관앞에 거언히 솟아 빛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승리》상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너네에 경의를

은 반미대전의 력사이다. 1960년대의 《푸에블로》 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 사건, 1990년대의 광란적인 군사적압력과 심리포악전을 비롯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채찍채동은 악랄하고 끈질기었다. 특히 1990년대 중엽부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작전계획 5027》, 《작전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전승 60돐을 성대히 경축한 공화국의 전승로병들과 전체 인민이 다시금 진리로 새기는것이 있다. 조선인민은 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어 7.27전승의 력사는 영원하다

는 반미대전의 력사이다. 1960년대의 《푸에블로》 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 사건, 1990년대의 광란적인 군사적압력과 심리포악전을 비롯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채찍채동은 악랄하고 끈질기었다.

전승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 있어 이 땅우에는 오늘도 승리의 력사가 아로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의 확고부동한 계승속에 최후승리가 있는 법이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가렬치절할 싸움이었다. 수직, 군사기술 대결에서 너무도 엄청난 대결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조선이 이기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다.

기관관앞에 거언히 솟아 빛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승리》상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너네에 경의를

은 반미대전의 력사이다. 1960년대의 《푸에블로》 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 사건, 1990년대의 광란적인 군사적압력과 심리포악전을 비롯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채찍채동은 악랄하고 끈질기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 7.27과 더불어 승리는 영원하리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세계 《최강》을 떠드는 미국과 추종세력을 타승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였다. 3년간에 걸치는 전화의 나날 경도전, 비행기사냥군 조운동을 비롯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법을 창조하시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전승의 촉도를 안아온 결정적요인이었다. 총포란이 작

남조선 언론들은 《김일성주석은 담대한 배짱과 명활한 지략으로 수직으로 우세함만 믿고 덤벼드는 미군과 15개 다국적군을 무릎꿇게 하시었다. 불과 몇 십년전 일제에게 조선의 국권을 힘없이 빼앗겼던 기억이 생생한 우리 민족이 세계 《최강》의 침략군대를 격퇴하고 조국을 수호한것은 전세의 위인, 탁월한 지도자 김일성주석이 계셨기때문이었다.》고 전하였다. 7.27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년은 총포성

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7.27의 전승신화, 련전전승의 기적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시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군술로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조국수호자들에 게 열적의 의지와 무적의 용맹을 불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무진막강한 군력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고있다. 그이께서는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거행된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길이 떨쳐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준 혼연일체의 빛나는 화폭이었다.

열병광장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간 열병종대들과 강철포신을 높이 추켜들고 지축을 흔들며 노드쳐간 기계화종대들, 목청껏 환호를 터치는 군중시위대렬을 보면서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은 세상에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라며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북녘동포들의 《일심단결》은 말은 말이되 말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의 력사현실이라고 정의해야 옳을것 같다.》

일심단결이 그 무슨 환상이 아닌은 말할것도 없다. 《일심단결》이라 그말이 말하는 그 어떤것은 북

년동포들의 의식속에, 심장속에, 그들의 생활속에, 그들의 꿈과 미래, 리상속에, 그 모든 곳에 늘 함께 있는 그래서 그들모두의 숨결과 웃음속에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는 북녘동포들의 존재 그 자체라고 정의해야 옳을것 같다.》

북을 다녀간 정기령재미동포의 실담이다. 하다면 공화국의 최강의 무기, 강성국가 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인 혼연일체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가. 단결은 국가의 기초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추동하는 힘이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부터 이룩되고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끊임없이 계승되고 발전되어온 공화국의 일심단결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관통되어오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단결의 계승이라는 것이다.

청소한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대결하여 이길수 있었는것도 1990년대의 고난의 시기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도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혼연일체의 힘이 강했기때문이었다.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단결의 전통,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이어가고있다. 그이께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유산인 혼연일체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빛내이시기 위해 불같은 사랑과 믿음의 안고 인민을 찾아 걸고걸으시는 사랑의 길, 헌신의 길에서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리따르며 차디찬 물속에 뛰어들며 목청껏 환호하던 무도아 장제도의 인민군인들, 아기가 생기면 창천거리를 지나가다가 꼭 들리겠다고 하신 그이를 기다리는 창천거리 세 집의 젊은 부부의 모습...

정신 조국강 그 어디에 가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애호와 흐믓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 오직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만이 간직되어 혼연일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공화국의 가장 큰 재부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혼연일체의 력사는 영원히 이 땅우에 장엄하게 흐를것이며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갈 것이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대한 사랑은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전승로병대도원들을 경축행사장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온 혁명선배로, 위대한 너네의 승리자들로 내세워주시고 행사기간 로병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새라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 공화국의 재부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북녘동포들의 《일심단결》은 말은 말이되 말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의 력사현실이라고 정의해야 옳을것 같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 조국의 힘은 무진막강하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전승의 촉도가 이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강산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정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가려는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장순정(재로조선국민중앙협회 회장)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정복하려고 침략전쟁의 도화에 불을 달았던 미국이 패자의 회개를 든 때로부터 60년이 흘러갔다.

지난 60년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7.27전승이 곁이 이어진 련천전승의 력사이며 미국에 있어서는 제침의 야망이 결융마다 분쇄된 치욕과 패자의 력사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있는 《EC-121》 대항간첩비행기사건과 무장간첩 《푸에블로》 호 사건 그리고 70년대의 판문점사건, 90년대에 거둔 핵대결전을 비롯하여 세기를 이어오는 철예한 조미대결에서 승자는 언제나 조선이었고 패자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침략위협책동에도 끄떡없이 우리 인민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번영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명장들을 령도자로 모시였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조선반도에 세

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올 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적대세력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전전쟁에는 전전전쟁으로 대담할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백방으로 다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당시의 정세는 미국에 의해 전쟁도화선이 각각각타들어가고있었지만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조선인민이 각 구분대대에서 2월 8일을 기념하는 종북별 체육경기대회를 예술공연을 예경대로 성대히 하도록 하시고 2월 중순에는 농사문제토의와 관련된 대회도 소집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창건 20주령축행사준비를 미리부터 다그치도록 하시니 함경남북도,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의 여러 공업지구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

면서 온 나라 인민들을 공업화의 완성과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밤 12시까지의 공장에 견설하고 살림집도 건설해야 한다는 철의 의지와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안으시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계신 어머니수령님이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시시각각 포위환을 조이던 그때 선군의 보검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위한 조국수호전을 현명하게 이끌고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의 선군장정이 있어 나라의 곳곳에 태천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회천발전소를 비롯한 동력기차들이 수풀처럼 솟아나고 청류다리(2단지)와 금동2동굴,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건설되었으며 조국의 대지에 자연호를 식물기둥이 뻗어오고 도처에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마련되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승리와 창조의 력사를 이어온 우리 나라는 또 한번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현대적인 창조지가 일떠서고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평양인속공

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번듯하게 일떠서 조국의 모습이 날이변모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력사적인 호소는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에 발처나선 온 나라 인민의 열정적응원을 촉발시켜준다는 애국의 호소이고 승리의 기차이다.

밝은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지닌 온 나라 인민은 견결한 조국수호정신과 불굴의 기상으로 토지의 발걸음따라 마식령스키장과 세포동관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마식령속도》 열풍을 일으키며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겨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인생의 시작과 끝

인생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그러나 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바친 생은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기억속에 영생한다. 전승의 뜻깊은 날에 준공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감동은 자못 크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가열한 반미성전에서 한복속 바친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뜨거운 사랑에 의해 훌륭히 건설된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에 수렴된 명령을 높이 받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떨

쳐나선 유망무명의 렲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여있고, 그들이 영웅적절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인민군렬사묘를 새롭게 건설할것을 천히 발기하시고 훌륭히 완공되도록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인민군렬사들을 안치하게 될 렲사묘구획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망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렲사묘의 문주와 기념탑, 화장전정대 등의 형상과 건설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다. 이처럼 그의 세심한 보살핌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동적애와 도덕의리의 상징으로 길이

빛나고있는것이며 렲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은 오늘날도 후대에게 승화한 귀감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그분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지난해 2월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기꺼이 바친 글풀광산의 한 광부와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농장원의 소행도 애국충정으로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유해를 애국렬사들로 안치하도록 하시어 그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애국렬사로, 공화국영웅으로 생을 빛내도록 하시였다. 공화국 공민들의 삶과 위훈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리에 떠받쳐 시작을 잃어도 끝이 없는것이 애국렬사들의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위인의 품속에서 영웅도 태어나고 그들의 삶도 빛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셨다. 라항심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석하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로녕일보》, 《길림일보》, 《흑룡강일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동북포도망, 길림망, 동북망은 7월 27일 조선의 수도에 자리잡고있는 김일성광장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진행되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행사에 참석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쿠바TV방송, 웨남의 《년전》, 《하노이 며이》, 중앙TV방송, 보이엔엑스프레스를 비롯한 신문,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 네발의 신문 《머저두르》와 씨거르마타TV방송, 캄보자신문 《꼭 쓴대피엠편》, 싱가포르의 신문 《싼데이 타임스》

와 TV 《아시아소식토르》, 인디아의 신문들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언 엑스프레스》, 《트리뷴》과 PTI통신,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 수리아의 사나통신, 중앙TV방송, 레바논신문 《알 줘후리아》, 이란의 이르나통신, 메흐르통신, 중앙TV방송, 영국로 스키 뉴스TV방송, 마자르통신, 슬로베니아의 STA통신 등 유럽나라들의 통신들, 미국신문 《도이칠랜드의 ARD TV방송, 프랑스의 BFM TV방송, 베네수엘라 텔레비전 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쿠바, 웨남, 네발, 싱가포르, 이란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중국의 홍콩 붕항위성 TV방송, 웨남의 신문,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 이란의 이르나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상계관 작품 대전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네발의 씨거르마타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광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 인디아의 지 뉴스 TV방송, NDTV방송, 베네수엘라 텔레비전 TV방송은 그를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이 엄숙히 진행된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로세의 리아 노보지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시어 개관케를 펼으신 소식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축하야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를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본사기자

##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과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공화국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번 경축행사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대표단들이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상에 자랑할만 한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되었다.

공화국의 전승절행사는 조중친선의 참모습을 세상에 널리 과시한것으로 하여 더욱 뜻깊은 축전으로 빛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전승절을 축하하여 공화국을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을 만나주시고 조중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이 리원조국가부주석은 접견석상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정중한 인사와 구두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중국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뜻깊은 7.27을 맞이하고 있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성의껏 준비하여온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또한 전승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어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진정하시고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은 공동의 위업을 위해 함께 싸운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를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자, 조중친선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지한군렬사들의 혁명정신과 불멸의 위훈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는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책임이고 숭고한 도덕의 리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중국의 친선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조선인민의 환대속에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과 중국인민지원군 령도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및 렲사가족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친선사절들은 전승 6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아리랑 공연, 전승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등에 참가하여 승리의 명절을 맞은 조선인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공화국의 전승절을 중국의 여러 대표단들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과 함께 성대하게 경축한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우정과 믿음,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영원히 이어가고 빛내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드림같은 정책과 의지의 발현이다.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중친선

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는 힘겨운 싸움을 벌리고있는데 때에 중국당과 정부가 《함미원조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우리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청년들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를 잘 알고 귀중히 여기며 길이 빛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어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진정하시고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은 공동의 위업을 위해

함께 싸운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를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자, 조중친선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지한군렬사들의 혁명정신과 불멸의 위훈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는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책임이고 숭고한 도덕의 리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중국의 친선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조선인민의 환대속에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과 중국인민지원군 령도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및 렲사가족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친선사절들은 전승 6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아리랑 공연, 전승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등에 참가하여 승리의 명절을 맞은 조선인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공화국의 전승절을 중국의 여러 대표단들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과 함께 성대하게 경축한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우정과 믿음,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영원히 이어가고 빛내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드림같은 정책과 의지의 발현이다.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중친선

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굳건해지고 발전여겼다. 7월 29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의 친선환무대가 진행되었다. 련환무대에서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가열치열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여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 중국대사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은 공동의 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선별들의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아가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승 60돐경축 행사들을 통하여 세계는 정의의 위업을 위해 피흘려 함께 싸우는 과정에 맺어진 조중인민의 혁명적의리와 전투적우의, 친선의 정은 압록강의 흐를처럼 절대로 변할수 없고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음을 다시금 뚜렷히 보았다. 오늘 국제정치정세는 비연히 복잡다단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중국의 로세대 령도자들에 의해 마련되고 발전하여온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굳건해지고 발전여겼다. 7월 29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의 친선환무대가 진행되었다. 련환무대에서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가열치열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여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 중국대사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은 공동의 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선별들의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아가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승 60돐경축 행사들을 통하여 세계는 정의의 위업을 위해 피흘려 함께 싸우는 과정에 맺어진 조중인민의 혁명적의리와 전투적우의, 친선의 정은 압록강의 흐를처럼 절대로 변할수 없고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음을 다시금 뚜렷히 보았다. 오늘 국제정치정세는 비연히 복잡다단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중국의 로세대 령도자들에 의해 마련되고 발전하여온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굳건해지고 발전여겼다. 7월 29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의 친선환무대가 진행되었다. 련환무대에서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가열치열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여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 중국대사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은 공동의 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선별들의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아가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사랑과 정은 세계를 이어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온 겨레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 제도와 재산의 유무 등 모든것을 초월하여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이념의 리념이고 도량과 포용력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남조선 현대일가사이 오고간 하해같은 믿음과 두터운 정, 분함없는 신의는 민족단합과 통일번영을 위한 겨레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있다. 인생의 황혼기에 여생을 북과의 협력에 바치는것은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에게 있어서 인간사회의 소망이었다. 그는 민족적합성이 있고 통일의지가 있다던 대자본가라고 해도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갔기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리념에 공감하게 됐고 마침내 주제87(1998)년 6월 북행길을 단행했다. 그러는 그후에도 가보았고 친척들과도 만났고 금강산이며 묘향산도 편방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령정이었다. 그는 내친 걸음을 더는 멈출수 없었고 다시금 평양행을 걷게 됐는바 때는 그해 가을이었다. 어느날 그를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80고령의 신앙을 헤아리시어 체류기간 불려한점은 없었는가, 다리를 불편한편에 쓰신것은 어떻게 되며 그렇게 되었는데도 세세히 알아보셨다. 정주영선생이 배짱이 세고 한번 하자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내미는 성미를 가지고있는분으로 알고있다고 하시는데 이께서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금강산관광개발문제에 대해 하여 그 제가하는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애국애족의 림장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력을 잘해 나가도록 함께 대하여 그리고 민족이 잘되고 잘살게 하려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언제나 손잡고 나갔기이라는대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만났것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자고, 나 수많은 정주영선생이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잡으시고 사진을 찍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범한 용단과 확고한 결집, 숭고한 덕망에 감개한 그로 금강산관광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그해 11월 동해의 만경광장에 첫 관광선을 띄우므로써 민족경제협력의 물고기를 띄웠었다. 그때로부터 해를 넘기며 수많은

은 남북동포들이 금강산에로의 유쾌한 탐승길을 이는데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금강산 관광은 국민들속에서 화해와 협력, 통일의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관광을 단순한 사업이 아닌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문제로 인식했던 결과였다.》고 전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특유의 인품과 민족애, 통일이 큰 결단은 정주영선생의 심중에 파도를 일으켰다. 기업가는 기업으로 애국애족한다는 자기의 지론과 함께 남북협력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기대하시는 김정은장군님의 믿음과 선의가 더욱 굳어지고있었던것이다. 그가 다시 북을 방문한 주제89(2000)년 6월 어느날이었다. 그를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대리 민족의 화해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헌신한 계획자라고 평가하시면서 그 공적은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였다. 현대기업의 변성과 북남경제협력의 활력을 위해 심흔을 다 기울인 그가 8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운명에 애를 감추지 못해서 애가죽들에게 조전을 보내셨고 현지로 방문하는 북의 조의대표단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셨다.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건설된 체육시설도 류경장기슭에 건설된 또 명명하도록 하셨다. 통일과 분열, 자주와 사대국 사이의 절예한 대결로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군 하는 때가 빈번했지만 민족의 사회적요구, 한결같은 지향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비롯한 민족적화해와 단합실현에 기울이시는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었고 전 현대그룹회장 정주영선생과도 인연을 맺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제89(2000)년 9월이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비롯한 현대그룹관계자들과 함께 금강산기슭에 개발한 관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현대그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고 해상통로와 함께 육로와 항로를 새로 개설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도 풀

아주셨다. 정주영선생은 선천의 유지를 따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운영을 비롯한 북남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보살핌에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될 북남통기구상을 보면서 이 모든것이 현대그룹에 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관심이고 배려라고 하면서 앞으로 북의 기대에 어긋나기 없이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것이라고 토로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8월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비렬하고 불순한 모함에 의해 운명하는 때에도 대북협력에 원할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유서를 남긴 정주영선생이였다. 어느날 그의 사망에 대한 뜻밖의 비보를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을 보자고 했는데 위대한 장군님이였다. 그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의 딸과 노력이 스며들던 금강산에서 추모회를 가지며 비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6.15시대에 남조선전선세력이 《비력,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고 북남공통선언들을 전면부정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하고 하시며 통일에의 발걸음을 한시도 늦추지 않으셨고 현대기업의 북남경제협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다. 주제98(2009)년 8월 어느날이였다. 현대관계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변명하는 현대가 되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현대그룹 현정회장정일행을 만나시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문제 등 그들이 청원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셨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담화를 나누시며 정주영, 정몽헌선생을 비롯한 현대그룹 선임자들을 회고도 하시고 앞으로 기업활동과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각별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그의 고무와 격려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현대

대측에 힘을 실어주어 한번 맺은 인연을 이어가는 의미》로 널리 전했다. 그 나날 현대그룹 현정은회장은 개성공업지구에는 단순히 생산물을 만드는곳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는 남북교류의 터전이라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고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신 국방위원장님을 길길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것》이라고 깊은 애도의 조문을 표했다. 그날 현정은회장을 만나시고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한 레와 따뜻한 동포애에서 사람들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현대일가와 인연을 맺고 두터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보았고 장군님께서 현대일가에 배후산관공문제 등 그들이 청원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셨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담화를 나누시며 정주영, 정몽헌선생을 비롯한 현대그룹 선임자들을 회고도 하시고 앞으로 기업활동과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각별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그의 고무와 격려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현대

대측에 힘을 실어주어 한번 맺은 인연을 이어가는 의미》로 널리 전했다. 그 나날 현대그룹 현정은회장은 개성공업지구에는 단순히 생산물을 만드는곳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는 남북교류의 터전이라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고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신 국방위원장님을 길길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것》이라고 깊은 애도의 조문을 표했다. 그날 현정은회장을 만나시고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한 레와 따뜻한 동포애에서 사람들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현대일가와 인연을 맺고 두터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보았고 장군님께서 현대일가에 배후산관공문제 등 그들이 청원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셨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담화를 나누시며 정주영, 정몽헌선생을 비롯한 현대그룹 선임자들을 회고도 하시고 앞으로 기업활동과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각별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그의 고무와 격려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현대

# 절세위인들의 통일유혹관철에 가족적으로 펼쳐나서자

오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교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혹을 절저히 관철하시라》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6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유혹에 쌓아올린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의 역사적유혹을 이룩하기 위해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어머니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어머니수령님의 유훈대로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유혹사행에서 건적이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로작이 밝혀준 길을 따라 지난 기

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서는 비약적전진이 이루어졌다. 그 나날에 민족통일성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유혹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넘니한 것은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릉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유혹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변영의 리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변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혹은 오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임과업이기에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유혹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유혹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넘니한 것은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릉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유혹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변영의 리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변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혹은 오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임과업이기에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유혹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유혹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넘니한 것은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릉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유혹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변영의 리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변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혹은 오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임과업이기에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유혹을 이룩할수 있는

## 고인의 꿈, 겨레의 소망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헌신한 남조선의 현대그림 전 회장 정몽헌선생이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다.

선친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통일에국사업에 헌신분투하던 정몽헌선생이 55살의 나이에 자살이라는 비극적운명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지 않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모해와 압박에 의한것이였다.

북남관계발전에 앞장섰던 현대그림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던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현대그림이 자금년에 시달리고있던것을 기회로 삼고 《대북송금사건》이라는 모략극을 꾸며내어 정몽헌선생에게 이중삼중의 압박을 가했다. 정몽헌선생이 운명하기 전날에도 남조선검찰은 그를 불러다놓고 조사를 벌임으로써 그의 마지막 정신적지탱마저 허물어버렸다.

남조선보수세력이 벌린 모해와 압박책동이 얼마나 허황하고 비렬했는가 하는것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6월에 남조선검찰이 《대북송금, 현대비자금의혹사건》의 핵심인물에게 씌워

놓았던 이른바 《비자금수첩의》에 대해 무형의처분을 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반통일세력은 이렇듯 정몽헌선생을 자살이라는 비극적운명에 몰아넣었음뿐 아니라 정주영선생과 정몽헌선생의 필생의 뜻이 어린 북남경제협력사업들은 물론 그 직접적담당자였던 현대그림마저 없애버리기 위해 발말했다.

하여 금강산관광길이 지난 2008년 이후 완전히 막혔으며 오늘날에는 개성공업지구마저 생사기로의 위기에 처해고있다. 또 현대그림을 비롯한 남조선경정순찰을 임수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몽헌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민족화해와 단합, 공동번영의 소중한 꿈이 남조선의 반통일대결세력에 의해 10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비극이 아닐수 없다.

정몽헌선생은 비록 우리결을 떠났지만 그의 꿈, 겨레의 간절한 소망은 민족의 거대한 통일애국투쟁의 길에서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현실로 꽃피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단상

너나없이 어깨동무 하고 활짝 웃으며 한덩어리가 된 처녀들, 저 사진속의 주인공들은 누구들인가.

그들이 바로 며칠전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를 끝내고 서울의 잠실종합운동장이 떠나갈듯 승전의 환호성을 터치는 북과 남의 장한 축구선수들이다.

모두가 기쁨의 밝은 미소를 짓는 사진의 주인공들을 보노라면 누가 북녘선수인지, 누가 남녘선수인지 알수가 없다. 또 알아서는 무엇하랴. 그들은 이미 축구로 하나가 되었는데.

선수들이 나서자란 고향과 교장은 서로 달랐다. 살아온 환경과 제도도 달랐다. 그러나 축구대회장에서 만나자마자 서먹서먹함과 경계심은 붉은처럼 녹아없어졌다.

모두가 지켜본 축구경기대회, 그 전과정은 겨레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팀을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가 한 팀이었고 한심술이었다. 앞서 있는 북남대항전에서 누누고 할것없이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어 경기장울 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한 이들이 아니었던가. 경기 마지막날에도 북의 선수들은 일본과의 치열한 경기를 진행하

## 북남이 함께 들어올린 우승컵

는 남측선수들을 자기 편처럼 열광적으로 응원하였다.

남조선선수들이 일본팀을 라승하였을 때는 북과 남의 선수들이 모두 경기장울 돌며 승리의 환호성과 기쁨을 터뜨렸고 서로서로 열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한데 어울려 기념사진도 찍었다.

《우리가 응원하니까 힘나지 않았나?》라고 묻는 북녘선수의 눈빛에는 친형제같은 각별한 정이 어렸으며 《우승을 축하한다.》고 어깨를 치며 격려하는 남녘선수는 마치 오래동안 알고지낸 사이인듯 했다. 북과 남의 두 감독들도 23년전 바로 그 장소에서 통일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우승의 시상대에 함께 올라 서로를 축하해주었다.

그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며 누구나 생각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것을. 민족의

정은 누구도 가를수 없다는것을.

북남관계는 여전히 최악의 대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 땅에 드로운 불신과 대결의 어둠은 좀처럼 가시여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근 70년에 이르는 분렬사가 만들어낸 불신과 대결감보다 더 강하고 진한것은 반만년민족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애, 민족적공통성이었다. 그것을 이번에 북과 남의 나이런 여자축구선수들이 자기들의

순결한 마음으로 보여주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것을 마음후련하게 보여주었다.

북과 남의 선수들과 관중이 하나의 마음으로 펼쳐보인 경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경기였고 그래서 통쾌한 민족의 우승으로 끝났다. 동아시아지역의 여자축구패권을 들어온 영예의 시상대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나란히 올라 기쁨의 웃음, 감격의 눈물을 터뜨릴 때 온 겨레는 격정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리일경

## 동족대결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북남관계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어있으며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남조선에서 구시대적인 동족대결정책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종교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외국에 이르게 된것은 다름아니라 남조선의 이전 《정부》의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하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발족하자마자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내걸고 북남관계를 단계적으로 과판시켜온 리명박 《정권》의 대결본색은 첫 통일부 장관대내임으로써 여실치 드러났다.

리명박 보수 《정권》은 《통일은 없다.》는 궤변으로 사람들을 영악케 했던 회세의 반통일대결광신자인 남

주홍을 통일부 장관자리에 내정했건것이다.

그것이 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지만 현인택, 류유익과 같은 대결광들을 골라가며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히고 대결적 《대북정책》을 계속 고집해왔다.

그들은 관광객사건을 코에 걸고 《북남경제협력의 유동자》로 불리워오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모략적인 《천안》 호사건을 구실로 약탈하는 《5.24조치》를 발표시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격렬시켜버렸다.

그리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공화국의 《금번사태》를 꿈꾸며 열도당도않은 《기다리는 전략》이런것을 구사해왔다. 리명박 보수 《정권》 시기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받아왔다. 결과 리명박 보수 《정권》의 지난 5년간 열이북은 북남관계를 개선해보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의 단 한번의 변변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리명박 《정권》은 또한 외세와 야합한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소동과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태도형도발, 베라살도 등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켜 언젠가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를 조성해왔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라는 허황한 《홍수통일》 야망에 사로잡힌 리명박 보수세력들이 북남관계에서 해놓은 일만 6.15시대의 성과물들을 모조리 말아먹고 정세를 극단한 대결국면으로 돌려세웠으며 온 겨레

## 평화협정체결로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주최로 7월 27일 서울 통산에서 조선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다.

남조선과 여러 나라의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말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6.25전쟁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야수적으로 학살당한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전쟁이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남조선군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해왔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지속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나자고 호소하였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할것을 주장하였다.

오늘의 투쟁을 더욱 확대하여 전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불길이 타오르게 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 무는 《북위협》을 걸고 해마다 진행되는 북침행전쟁연습과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을 정세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를 긴장시켰다. 또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공돈》으로 여기며 흥청망청 탕진해온것이였다.

2012년에 미군이 그 막대한 돈을 은행에 두고 리자를 불려오는 장사를 해왔다는것을 밝혀졌으며 그 무는 《기념먹어주면서도 오만한 미국이었고 섬기며치면서도 밟은 병어리처럼 공공 뺏아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였다.

중당에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미국에서 3차협상을 하기로 내다서는것이였다.

더 내려가니, 못 낸다느니 아웅다웅 했다고 하지만 먹어주면서도 오만한 미국이었고 섬기며치면서도 밟은 병어리처럼 공공 뺏아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였다.

《미군주둔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 1991년에 100억엔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는 1조원이 넘게 먹겠다는 미국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송준일

## 오만한 상전, 비굴한 하인

이처럼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침략과 전쟁, 살인과 학살, 타락과 방종에 허비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더 내라고 으르렁대고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범죄자 미군에 대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동족을 핵심제국공격해라고 꼬박꼬박 돈을 섬겨치며 구겨한 강도를 오명시킨

##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은 물러가라

###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주장

미군의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국민들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과 허울좋은 동맹관계가 낳은 필연적결과라고 개탄하였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모순군대를 철수하고 조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해 밝혀져있으나 미국은 60년이나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을 구실로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는자들은 모두 미국의 리익을 저들의 리익으로 여기는자들로서 그 자체가 예측의 증거라고 비난하였다.

각계층이 자주와 통일의 길을 걸어온 필사들의 넋을 이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체결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이 당장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단체들은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의 프랑카드들을 흔들고 구호를 웨치며 백악관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러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26일 단체들은 미국회와 국무성을 찾아가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이쳤다.

본사기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침략자들을 통째로 떠버려야 하는 골종과 동족대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리라는 미국과 못 올리겠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 하지만 결과는 보나마나일것이다.

미국의 말이라던 까치러운 줄 모르고 속내의 거기 벗어 던지는 그들에게 1조원이 무슨 대수랴.

하물며 동족대결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공약이고 뭐고



동남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경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진 실 은 가 리 을 수 없 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군의옥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압초우에 올라선 배마냥 한치 앞도 못 나가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 25일 《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7월 2일 《국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여야당은 원세훈 전 정보원장의 불법지시의혹 및 정보원들의 정치개입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합의가 보지 못한 문제들인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채택문제, 제척사유(특정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수 없게 함.)가 제기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윈교체문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7월 10일에 만나 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는 그때뿐이고 지금까지 합의 못한 여러 문제들로 하여 《국정조사》

는 난항속에 헤매이고있다. 그것도 그렇것이 《새누리당》이 저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국정조사》를 한사코 반대하고있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새누리당》은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권력을 내세워 《정권》을 강탈한 자들의 전대미문의 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때문이다. 그러나 각계의 강력한 항의속에 마지못해 《국정조사》를 승인한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새누리당》이기에 앞에서는 《국정조사》를 승인하고 돌아앉아서는 《국정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의 방해물로 처음 들고 나온것이 바로 그 무슨 자격을 운운하며 《국조특위》위원인 민주당의 두 의원들에 대한 교체문제이다. 《새누리당》이 떠드는 자격이란 민주당 의원들이 정보원 내직인 남조선국무장관에게 개입하였기때문에 《국조특위》위원 자격이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후에 판명되바와 같이 민

주당의 두 의원들은 정보원의 대군사건을 처음부터 발견하고 지난 6개월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온 당사자들로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해명할수 있는 주요인물들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새누리당》이 그 무슨 자격을 운운하며 그들을 교체하라고 주장하는것은 《국정조사》를 호기부지하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는것이다. 어떻게 해서나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해명하려는 민주당의 양보로 이 문제가 일단 해결된 《새누리당》은 또 다른 문제로 《국정조사》를 가로막고있다. 그것이 바로 《국정조사》에 출연할 증인채택문제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리명박과 원세훈 전 정보원장,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주요장본인들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이리저리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그 무슨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우》와 원세훈과 같이 수권 감중에 있는 본인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그대로 넘어가자는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정보원

의 《대선개입사건》과는 아무런 연인도 없는 야당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있어 《국정조사》에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이렇게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위한 《국정조사》의 앞길에 압초를 박아놓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호뭇한 미소를 지은채 여류유가까지 지내고있다. 사실자료들은 《새누리당》이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해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8월 15일까지 진행되게 될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위한 《국정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것인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 만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책동으로 제대로 될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그러나 자부족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유명무실해지고있는 지금의 《국정조사》에서 비록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수 있으나 언젠가는 그 내막이 만천하에 폭로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최근 남조선에서 7월 2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진행되는 정보원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문제가 커다란 사회정치적 물의를 빚고있다. 발단은 《새누리당》이 원세훈과 김용관 등 이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들의 증인채택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것과 관련된다. 지난 7월 31일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정보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은 하되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까지 보장하는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정계, 사회계가 강력히 반발한것은 물론이다. 형식상 《국정조사》라는것을 벌려놓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하나 어물쩍해넘김으로써 진실규명을 피하려는 너무나도 얄은 수가 깔려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를 잘 알수 있다. 다른것은 제쳐놓고라도 이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원세훈 전 정보원장에 대해서만 놓고보자. 알려진것처럼 지난 3월 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을 통하여 《원장님지시 및 강조말씀》이라는 정보원의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출판물들을 통하여 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증명해주는 자료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조짐은 원세훈 전 정보원장에게로 모아지게 되었다. 원세훈을 범정에 세울때 대한 각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정보원 불법정치개입이 확인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을 불구속시켰다. 그런데 다음달 10일 검찰은 다시금 원세훈을 《퇴물수수협》에

게 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 그것도 그렇것이 원세훈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부정선거》, 《선거무효》론란으로 번져질수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막거나 지연시켜보려고 발악해왔다. 그러나 야당과 각계층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에

밀자료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섰다고 한다. 이에 바빠난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심화되고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되어 원세훈이 막다른 처지에 빠지게 되면 자기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폭탄발언》도 서슴없이 할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원세훈의 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검찰과 짜고 그를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는 무관한 부정부패 혐의에 걸여 구속하는 불을을 빌렸다고 보는것이 각계의 평이다. 지금 남조선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원세훈이 검찰진술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원세훈의 입을 두려워하는것 같다.》, 《(대선) 기간에 청와대가 원세훈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가 밝혀질수도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것만큼 청와대와 여론이 검찰과 모종의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의 규명을 촉구하고있다. 예로부터 피지는 사람이 밝은 해를 무서워하는 법이

## 원세훈구속이 보여주는것은

에 걸여 전격적으로 구속하고 일체 외부와 접촉할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원래 원세훈은 정보원소속 심리정보국을 동원하여 2010년 《지방자치체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있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해왔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나 다음에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식으로 감속하였다. 그러던 검찰이 이번에도 태도를 돌변하여 원세훈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아먹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왜 전격적으로 구속하였는가. 정보원 《국정조사》가 한창인 상황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일이라는것을 류의해해 볼 때 여기에는 원세훈을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한 《재직기간중에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하

원세훈구속이 보여주는것은

에 걸여 전격적으로 구속하고 일체 외부와 접촉할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원래 원세훈은 정보원소속 심리정보국을 동원하여 2010년 《지방자치체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있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해왔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나 다음에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식으로 감속하였다. 그러던 검찰이 이번에도 태도를 돌변하여 원세훈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아먹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왜 전격적으로 구속하였는가. 정보원 《국정조사》가 한창인 상황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일이라는것을 류의해해 볼 때 여기에는 원세훈을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한 《재직기간중에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하

지금 남조선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원세훈이 검찰진술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원세훈의 입을 두려워하는것 같다.》, 《(대선) 기간에 청와대가 원세훈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가 밝혀질수도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것만큼 청와대와 여론이 검찰과 모종의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의 규명을 촉구하고있다. 예로부터 피지는 사람이 밝은 해를 무서워하는 법이

## 정보원의 정치공작행위의 진상 규명하라

서울에서 범국민초분집회 전개, 각계층 균중 2만 5000여명 참가

남조선의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원정치공작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초분집회》의 주최로 7월 27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범국민초분집회가 진행되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성원들과 대학생, 시민, 해외동포 등 2만 5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대선》은 정보원의 부정행위에 의해 감행된 불법선거라고 까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성원이 각계의 항의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각방으로 궤방하며 파행으로 돌아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 원장 남세준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한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언론들 또한 정보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운동소식을 보도하지 않는 한편 《대선》기간 정보원의 불법싸이버테로행위가 감행되던 현상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는데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현 집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원의 정치공작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관련자들을 전원구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원개혁, 현 집권자의 책임있는 조치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사과하라!》, 《정보원을 개혁하자!》고 외쳤다.

본사기자

##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는 대국행위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7월 30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약》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언어를 위한 협의의 진정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국민사기행위》, 《국민의 생명안전을 미국의 손에 계속 떠맡기려는것은 벼슬까지 스며든(미국의 존중)》의 발로, 《명》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심지어 《새누리당》과 남조선군부내에서도 《미국이 지휘봉을 넘겨주겠다는데도 못받겠다고 뻔치는 꼴》, 《명》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는 불부는 소리가 울려나오

아정세를 격화시키며 북침전쟁을 기어 일으키려는 불순한 기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지난 조선전쟁때 리승만이 미국에 남조선군의 작전지휘통제권을 넘겨바침으로써 생겨난것이다. 하여 지난 60여년간 남조선군은 미군의 통제와 명령이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꼭두각시, 식민지고용군의 신세를 면치 못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심히 유린당하였다.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줄기찬 투쟁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을것을 요구해왔으며 결과 2012년 4월까지 《반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리명박미국 《정권》은 2010년 그 무슨 《위협》, 《남북관계긴장

해소》를 떠들면서 미국에 매질하여 반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쓸개빠진것을 한 리명박 《정권》을 가리켜 려사에 기록할 《최대의 사대매국정권》이라고 강하게 규탄하였었다. 이를 잘 알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 《2015년 전시기작전통제권 전환을 일정한대로 추진하겠다.》는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외교안보정책의 핵심과제로 쏘아박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엔 드러난것처럼 남조선당국은 한사코 미루고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또다시 연기해줄것을 구걸하였던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사코 미루고 있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남조선을 미국의 대아시아 지배실현의 전초기지로

더욱 내밀기고 남조선군을 미국의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불순한 전략에 따른것이다. 그리고 남조선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언어의 대가로 앞으로 미군유지비와 미사일방위체계참가 등 미국의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요구에 계속 시달리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오랜동안의 노력끝에 찾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도로 가져다 바치려는 현 《정권》이야말로 현대판 《올사오적》이 아닐수 없다. 현실은 천마시대, 외세굴종의 매국세력을 용납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정치, 경제, 군사적예측의 울가미를 벗출수 없으니 나아가서 민족은 큰 재난을 입을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현 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언어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명금릉



주소 : 평 양 통일 신 보 사

## 파쇼독재시기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인정

7월 28일 대전지방법원이 38년전 군사파쇼독재 《정권》 시기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던 리완구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1975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리완구는 독재자의 《긴급조치》9호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유신정권》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유신》 독재자의 《긴급조치》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그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재심에서 파쇼 《정권》의 위법을 인정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사기자

##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분시위투쟁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된 이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편집위원회